

# 훈련한 대로 싸우고 싸우는 대로 훈련하자

## 리더's 다이어리

김민기  
육군8기동사단 진호대대  
중대장·대위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Let him who desires peace prepare for war)’. 로마의 전략가 베게티우스가 말한 역설적인 진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다.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겉으로 평화를 외치며 지속적인 도발을 하는 주적 북한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우리 진호대대는 최근 대대 전술훈련 및 전투사격 훈련을 했다. 훈련 때 중대장으로서의 목표는 상급 지휘관 의도를 명찰해 부대원들이 전시 실제 수행해야 할 핵심 과업을 집중 숙달하는 것이었다. 또 새로 전력화된 장비들로 미래에 우리가 전투하는 모습을 구현하고, 조우전 상황이 부여된 가운데 조건반사적이며 실전적인 편제장비 운용 능력을 향상하고자 했다.

중대장으로서 복합적 훈련 목표 달성을 위해 드론·공병·방공·포병과 연계한 기보중대의 소부대전투기술 시범식 교육으로 우리가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했다. 실제 장비를 활용한 자격인증사격(ICQC), 소대전투사격 락드릴(Rock Drill)을 통해 사격 진행방법, 위험요소 등을 교육했다. 또한 간부 교육, 전술토의 및 군지대대에 의한 장비 기술검사 등 후보 계획을 수립해 훈련 날까지 하나씩 준비했다.

훈련 당일, 시작을 알리는 무전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훈련이 이뤄졌다. 적과 장애물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등장해 우리의 작전을 방해했다. 하지만 우리 중대는 임무변수(METT-TC)를 고려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해 나갔다. 드론이 날아가 은거해 있는 적을 사전에 식별했고, 전장관리체계(BMS)를 통한 신속한 화력 요청으로 120mm 자주박격포를 적군 머리 위에 떨어뜨렸다. 이후 K21 장갑차 40mm 주포가 불을 내뿜으며 적을 제압했다. 하차조는 목표 좌우로 신속히 전개해 적을 격멸했다. 식별된 적의 장애물은 공병과 제병협동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었다.

이번 훈련은 미래의 전투 수행방법을 구상하면서 창의적인 훈련방식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했다고 자부한다. 우리가 미래에 싸우는 모습을 구현하며 훈련할 때 심장은 뛰었고, 육군의 미래가 설레고 기대됐다. 전쟁(War)의 반대말은 평화(Peace)일까? 아니다. 평화는 전쟁이 언제 발생하더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마음가짐과 힘으로 유지된다. 앞으로도 중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훈련한 대로 싸우고, 싸우는 대로 훈련해’ 적과 싸워 이기는 데 최적화된 중대를 만들어 나가겠다.

※ 본 지면에 게재된 글들은 본지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국방일보

발행인 체일 편집인 기국간

1964년 11월 16일 창간(일간) | 2010년 7월 1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337 | 인쇄인 장대환

독자관리 발송문의(구독신청 주소변경) 02-2079-3851~2 | 팩스 02-757-9309  
인터넷 kookbang.dema.mil.kr | 04353 서울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편집팀	편집 02-2079-3770-85 교열 02-2079-3791-4	군947-3770-85 군947-3791-4
취재팀	취재 02-2079-3730-42 사진 02-2079-3760-3	군947-3730-42 군947-3760-3
디지털콘텐츠팀	02-2079-3710-4	군947-3710-4
광고문의	02-2079-3124	군947-312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일체형 확장억제

## 조명탄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



응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축·시행한다는 것이었는데, 적어도 3가지 측면에서 진일보한 북핵 대응체제를 의미한다.

첫째, ‘억제(deterrence)’에 중점을 뒀던 기존 확장억제를 넘어 북한의 핵사용 ‘응징(retaliation)’에도 큰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냉전시절 강력한 응징체제가 미·소 간 핵전쟁을 예방하는 요체였다는 사실에서 보듯 신뢰성이 높은 응징 능력과 의지를 과시하는 것은 핵억제 전략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이로써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도발에 미국의 핵보복을 명시한 최초의 한·미 정상 간 합의문이 됐다.

둘째, 한국의 재래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이 통합돼 일체화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실행하는 기존의 확장억제와 달리 앞으로는 영국이 연합 대응하게 된다. 이는 미국이 대북 핵응징을 기획·결정·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의사가 반영됨을 뜻한다.

셋째, 북한의 핵사용 시 일어날 일을 그대로 보여 주는 핵·재래 통합 연합훈

련으로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강화되고 동맹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이번에 채택한 공동지침은 향후 양국 군의 ‘일체형 확장억제’ 운용을 위한 독트린과 작전교리, 연합연습 매뉴얼 결정 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종합하건대 ‘일체형 확장억제’는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 이후 양국이 핵협의그룹(NCG)서 꾸준히 후속 조치들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또 한 번 확장억제의 구체성·신뢰성을 강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한미는 북핵 위협이 확장억제 강화보다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집요한 동기와 목표를 가진 북한 정권의 핵특급열차는 지금도 질주 중이다. 러·북·중 북방삼각이 핵동맹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지난달 19일 러·북이 사실상의 동맹을 복원하고 자동개입과 군사기술 협력에 합의함에 따라 북핵 고도화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계속되는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빈곤과 인권 부재로 인한 주민의 불만 등으로 평양 정권이 극심한 체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감안하면, 북핵은 한순간 어느 쪽으로 쏠지 모르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일체형 확장억제’는 더욱 확고한 북핵 대응으로 가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6·25전쟁은 승리한 전쟁이다

## 국방광장

임국기  
육군1기갑여단장·준장



처럼 운천이라는 지형적 이점을 가진 북한군은 맹렬한 기세로 서울로 향했고, 당시 국군 전력으로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운천·철원의 전략적 가치는 단순히 군사적 요충지에 그치지 않는다. 전쟁 전 이곳은 주요 곡창지이자 종횡으로 발달한 도로망과 개활지를 갖추고 있었기에 북한은 이 지역을 통해 다양한 자원을 전선으로 신속히 공급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급망은 북한군의 초기 진격에 큰 힘을 실어 줬다. 특히 횡적으로 발달한 도로망이 없는 북한으로선 한반도 중앙에 위치한 철원·운천 지역의 개활지가 초기 기습작전을 하는데 최적의 장소였다. 그런 이유로 북한과 국군 모두 사활을 걸고 반드시 확보해야 했고 처절한 사투 끝에 우리가 쟁취해 냈다.

닉슨독트린이 발표됐던 1970년 전후 북한 김일성은 당시를 다시 전쟁을 일으키기에 좋은, 최적의 시기라고 판

단했을 것이다. 1·21사태,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등 이 시기 238건의 도발을 감행한 데서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김일성은 왜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을까? 그것은 6·25전쟁 때처럼 모든 전력을 감췄다가 한꺼번에 전투력을 투사할 수 있는 운천이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 영토였기 때문이다. 즉, 운천·철원 확보는 단순히 영토 확장을 넘어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하는 동시에 북한의 재침략 의지를 꺾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일성은 죽는 순간까지도 산정호수에 있는 자신의 별장을 그리워했으리라...

오늘도 부하들과 함께 이곳을 누비며, 여기야말로 우리 선배 전우들의 목숨과 피로 지켜 낸 승리의 땅임을 실감한다. 이 승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에 선배 전우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다. 이 승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지금도 이름 없이 묻혀 있는 참전용사들에 대한 가장 큰 예우요,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6·25는 승자 없는 전쟁이 아닌 우리 국토를 지키고 후세에 자유와 평화를 물려준 분명한 승리임을 알아야 한다. 정전협정 71주년을 맞아 우리의 승리를 되새기고 잃어버린 승리를 되찾아 와야겠다.

내일은 정전협정 71주년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멈췄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전쟁을 끝나지 않은 전쟁, 승자 없는 전쟁이라고 부르지만 북한은 승리한 전쟁이라며 매년 7월 27일을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다. 북한의 역사 왜곡에 분노가 있지만, 과연 우리는 6·25를 승리한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을 품고 있던 중 육군 1기갑여단에 부임했고, 운천과 철의 삼각지 일대를 직접 정찰하고 지역 전사를 연구한 끝에 6·25전쟁 승리의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그 증거는 바로 철원·운천을 우리가 확보한 것이다. 전략·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인 이곳은 국군과 유엔군이 처절하게 싸워 이뤄 낸 완벽한 승리를 상징하고 있었다.

1950년 봄 북한군은 당시 북한 영토였던 운천·철원 등 43번·87번 도로와 주변 개활지를 이용해 북한군 3사단, 4사단과 105전차여단 등을 동원했다. 당시 병력 총 2만8000명, 전차 156대, 자주포 62문 등 전체 병력 3분의 1과 각종 전투지원부대를 집중했고, 전쟁 발발 후 단숨에 서울을 점령했다. 마치 순간적으로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것